

■ 권중달교수의 역사칼럼<7>

허명무실(虛名無實)

헛된 명예에는 실속이 없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서기로 5세기부터 아시아에는 아주 많은 나라들이 나타났다가 스러지는 일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는 개인이든 종족이든 국가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의 북쪽 지역의 많은 나라의 난립은 이 시기에 어느 정도 변화가 많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들 세운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어떤 시에 다섯 호족(胡族)들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보통 5호 16국 시대라고 한다. 16국이었고 해도 16개의 나라가 생겨나서 끝까지 함께 간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300년간 동안 생긴 나라가 16개라는 말이다. 따라서 어떤 나라는 왕조를 세우고 오래 가기도 했지만 어떤 나라는 생기는 했지만 얼마 안 가서 망하는 운명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의 남쪽에는 동진(東晉)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동진은 동쪽에 있는 진(晉)나라라는 뜻인데, 원래 삼국시대, 이른바 위(魏)와 오(吳)와 촉한(蜀漢)을 무너트리고 천하를 통일한 진(晉)나라가 낙양에 도읍을 두고 있었지만 앞에서 말한 오호가 내려오는 바람에 황제가 두 번 씩이나 잡혀가는 수모를 겪다가 동남지역으로 쫓겨 나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족(漢族)들은 북쪽의 호족(胡族)들을 야만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했지만 실제로 무력에서 감당할 수 없었으니, 옛 터전을 다 내어주고 쫓겨 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남쪽으로 쫓겨간 한족(漢族)들처럼 비록 힘이 없어서 쫓겨 왔지만 그래도 우수한 문화를 지녔다고 허명(虛名) 속에서 자랑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여 실적을 채우고 있어야 할지는 결과를 보면 북쪽 오호의 승리였다.

바로 이러한 400년간의 오랜 분열기간을 거처서 실질을 숭상하는 선비계통의 북위를 이어 받은 수(隋)나라가 남쪽까지 통일하는 패거리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오늘 소개할 나라는 이 시기에 있었던 남량(南凉)이라는 작은 나라의 이야기이다. 남량이 건국되었던 5세기 초에 중국의 북쪽에는 여덟 나라가 있었다. 동쪽으로는 후연(後燕)과 남연(南燕)이 있었고, 후진(後秦)과 북위(北魏)가 중간쯤에 있었으며, 서쪽으로는 후량(後凉), 남량(南凉), 북량(北凉), 서량(西凉)이 각기 왕조를 세우고 있었는데 이들은 각기 그 영역을 넓히려려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이 시기에는 힘이 있으면 왕조를 세울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항복시켜서 나라를 크게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언제 다른 나라에 먹힐지도 모르는 시절이었다. 이러한 때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속이었다.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백성들이 많아야 하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군사력을 잘 갖추는 일이었다.

이 시기에 지금 중국의 청해(靑海) 지역에 선비족(鮮卑族)의 한 지파인 독발(獨拔)이라는 성(姓)을 가진 부족이 있었는데, 그 대표라 할 독발이룩고(獨拔利窟孤)가 서기 397년에 나라를 세운 것이다. 역사에서는 이를 남량(南凉)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감숙성(甘肅省)과 청해성(靑海省) 지역에 있었다. 사실 독발(獨拔)은 후에 역사에서 이름을 떨친 탁발(拓跋)이란 말과 같다. 왜 이렇게 같은 종족을 다르게 기록했느냐 하는 것은 기록자가 그 종족들이 부르는 이름을 듣고 그것을 한자(漢字)로 기록하는 바람에 기록자가 달라서 다르게 쓰인 것뿐이다. 어쨌든 독발족(獨拔族)은 하루아침에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왕조를 건설한 것이 아니고 하서지역에서 2세기 동안이나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해 왔던 결과인 것이다. 이들은 본래 유목족이지만 농상(農桑)을 배워서 힘써 생산했고, 인구도 늘려 갔으며 이웃과도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경내를 안정시켰던 것이다.

그 동안 진(晉)에서는 호강(胡將)교위를 두고 이들을 지배하였고, 진이 몰려나 다음에는 후량(後凉)에 잠시 의탁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서야 겨우 독자적인 세력을 내외에 선포하고 독립한 것이다. 독발족의 입장에서 특히 그 지도자인 독발이룩고의 입장에서 감개무량했다. 드디어 다른 세력의 지배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왕조를 세웠고 200년을 끌어온 독발족의 승리였다.

독발이룩고는 무위왕(武威王)이 되어서 벌써 4-5년을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그러나 좀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게 되었다. 천하를 통일하는 황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하여 우선 황제라는 칭호를 먼저 붙이고 그 이름에 걸맞게 천하를 통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하여 독발이룩고는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본 많은 신하들은 찬성했다. 그동안의 업적으로 보아 황제를 칭해도 될 만하고, 또 그래야 천하를 통일하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이를 반대한 사람이 나타났다. 안국(安國)장군인 투물륜(綸勿論)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독발이룩고에게 지금 황제를 칭하는 것은 허명무실(虛名無實)이라고 말한 것이다. 즉 헛된 이름, 명예를 갖지만 실속이 없으니 실속 없는 짓을 왜 하느냐는 것이다.

투물륜은 독발이룩고에게 역사와 습관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상고 이래로부터 머리를 풀고 좌측으로 옷깃을 여미는 옷을 입었으며, 관과 허리띠의 장식도 없고

물과 풀을 찾아서 장소를 옮기고 성곽과 가옥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사막을 웅장하게 내려다보고 중화(中夏)와 대등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큰 칭호를 높이 들어 올림은 진실로 민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독발족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국제관계를 설명하였다. "도시를 건설하고 읍을 세우면 우환을 피하기 어려우며, 창고에 저축하면 적들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진(晉)의 백성을 성곽에다 두고 농업과 잡업을 권하여 자본과 저축으로 공급하는 것과는 같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을 통솔하여 싸우고 활 쏘는 것을 익혔다가 이웃 나라가 약하면 그 틈을 타고 강하면 피하는 것인데, 이것이 장구(長久)하는 좋은 계획입니다." 독발족의 장점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독발이룩고는 안국(安國)장군인 투물륜(綸勿論)의 말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다시 황제라는 헛된 호칭을 버리고 스스로 하서왕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정치를 다잡아 갔다.

사실 허장성세를 하였다면 이웃으로부터 정말로 그런 줄 알게 되어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았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그만 둔 것이 독발씨들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후량을 공격하여 2천호를 빼앗아 왔고, 북량을 공격하여 6천호를 빼앗아 오고 후량의 도읍인 고장(姑臧)을 점령하기까지 하였다.

물론 남량은 그 왕조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후에는 투무판지역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으로 계속 남아 있었으면서 동서문화교류에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오히려 왕조를 유지하는 것보다 동서교통으로서 중외(中外)무역을 담당하였고, 승려로 서역문화를 수용하여 보다 큰 영향력을 미쳤다.

독발이룩고가 허장성세를 버리고 실속을 차리려 하였던 것이 그 후손들을 끝까지 살아남게 하였다. 이러한 그 정신은 후손들의 생명력이 되어 그 독자적인 나라가 있던 건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지난 500년간 주자학적 명분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명분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지 않을 환란을 여러 번 당해야 했다.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유난히 허장성세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향후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 후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이 최악의 환경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투물륜이 독발이룩고에게 권고한 '허명무실(虛名無實)'이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할 말일 것 같다.

동해 권헌조 선생 수갈 및 고유제 봉행 (暨礪) (告由祭)

‘마지막 선비’ 동해(東海) 권헌조(權憲祖, 1930-2010) 선생의 수갈 및 고유제가 지난 4월 8일 오후 1시 경북 봉화군 봉화를 석령리 산31-1에서 봉행되었다. 묘갈명은 10여년간 즉질 문하생이었던 권갑현 교수가 찬했고 즉손 권혁근이 세웠다.



동해 권헌조 선생은 2007년 조선일보에서 ‘마지막 선비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취재할 정도로 고집스럽게 초야에서 유교적인 삶의 원칙을 옹호하며 지키며 살았던 그야말로 깨끗한 선비였다. 그는 8대조부터 300여년 지켜온 송석헌(松石軒)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49호)에서 도포 입고 80여년을 살았다.

송석헌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집’의 썼던 저자 권산은 노인과 집을 하나였다고 술회한다. 이 집에 살면서 하루 한 번씩은 집안 곳곳을 꼭 돌아보았다. 바로 집 뒷산에 있는 선친 희암공의 묘소를 조석으로 의관을 갖추고 성묘했다.

집을 나설 때나 집에 들어왔을 때 등 수시로 참배하는 바람에 다니던 잔디가 움푹 패어 길이 되고 반질반질하게 될 정도였다.

그는 유학의 본질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유학이요. 그런데 모두 그 길로 가면 정치가 안 되는 것이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장점이 많고 악한 사람은 단점이 많지요”라고 말한다. 그래서 “덕치는 원수가 없어지고 죄인이 없어지지만, 법치는 죄인이 더 많아지고 원수가 더 성”하다고 말한다. 조인 만드는 법치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동해선생 문하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비를 세우고 고유제를 지냈다. 그 스승에 그 제자들이다.



‘장곡 권태일(1569~1631) 선생의 생애와 학문’ 학술발표회

4/12일 안동시청 대강당에서는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와 성균관유도회경북분부가 주최한 장곡 권태일(1569-1631) 선생의 생애와 학문 학술발표회가 있었다.

장곡 권태일 선생은 안동권씨 별장공파로 주계서원에 배향된 회곡 권춘란의 아들이며, 퇴계선생의 제자인 반남박씨 인암 박승간의 외손자이다. 백담 구봉령, 유일재 김언기의 문인이며 학봉 김성일의 사위이기도 하다.

행사에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 예정수 성균관유도회 총본부회장, 안승관 유도회 경북본부회장, 김세환 안동부시장, 정훈선 시의회의장과 지역유림, 안동권씨 일족, 별장공파 문중, 장곡선생 주손을 비롯한 후손이 참석하였다.

장곡 권태일선생은 문과로 관직에 나아가 내직으로 청주목사를 두루 거쳐 형조참판을 지내고, 외직으로 충주목사,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요순의 심법인 ‘유정유일 윤집결중’의 「一中」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퇴계선생의 학통을 계승한 선비로서 유학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날 학술발표는 교남문화원 김명균박사, 안동대 정성건 교수로부터 권태일 선생의 생애와 학문, 예학 사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안동사무처 사무부총장 권오익)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하세요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 연락처

▶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 종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 033237-04-006941(국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2018년 9월부터 종보 대금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예금계좌 : 농협 301-0235-6546-41(안동권씨 대종회)

♣ 문의전화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회